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제1748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6년 6월 24일 (음력 5월 29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4(土)	25(日)
흐리고 비 20 / 26℃	흐리고 비 20 / 24℃

News

- 북한 미사일 문제 해법은 ②
- 4父女 "우리는 군인 가족" ③

Jeollado

- 풍수-해상왕국 완도의 대혈 ⑦

Entertainment

- 박정아·간미연 '홀로서기' ⑧
- '비열한 거리' 유하감독 ⑨

Books

- 우리 안의 과거 ⑩
- 날씨가 바꾼 전쟁의 역사 ⑪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토마토 ⑬

"우리는 대종상 심사위원"

광주지역 학생·주부 등 200명 활동

23일 낮 12시 롯데 시네마 제 5관. 이 곳에서 영화를 보고있던 100여 관객들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유난히 진지한 얼굴의 그들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다. 내달 21일 열리는 '제43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일반 심사위원단으로 위촉된 엄연한 '심사위원'이다.

학생, 주부, 직장인 등 광주에서 선발된 200명의 일반 심사위원단이 지난 22일부터 2주간의 심사 여정을 시작했다. 이들은 첫 영화인 '박수칠 때 떠나라'를 포함해 하루에 2편씩 모두 24편의 영화를 관람하며 심사하게 된다.

영화 총 24편 심사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200명씩 모두 1천여 명의 일반 심사위원단은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작품상과 감독상, 남녀주연상 등 9개 분야의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원단은 영화를 보고 난 후 인터넷을 통해 평가를 하고, 이들의 의견과 전문 심사위원단의 의견을 합산해 수상자가 선정된다.

대학에서 연기영상학을 공부중인 이정태(23·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씨는 예비 영화인답게 "이야기 구조가 탄탄하고 예술성이 높은 영화에 좋은 점수를 주겠다"고 말했다.

영화가 대중화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화제는 일반인과 격리돼 '그들만의 축제'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때로는 투명성과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기도 했다.

대종상 영화제가 올해부터 실시하는 '일반 심사위원단'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의견을 심사에 적극 반영해

공정성 시비 없애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오명을 벗고, 예술성과 공정성의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2003년부터 50명의 일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관객의 의견을 반영해오기는 했지만 서울지역에 국한됐고 그것도 예심에만 반영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대종상 사무국 이정준 대리는 "일반 심사위원단은 전문 심사위원단과 함께 대종상 시상의 중요한 한 축을 맡을 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심사위원단은 학력과 직업에 관계 없이 전문영화인이 아닌 18세 이상 영화에 관심있는 일반인으로 구성 됐으며 간단한 자기 소개와 영화평 제출을 통해 선발됐다.

광주 지역 일반 심사위원단을 대표해 위촉장을 전달받았던 조준원(40·곡성군 곡성읍 금내리)씨는 "관객 입장에서 보는 영화의 완성도는 전문가와는 또 다를 것"이라며 "스크린 쿼터 폐지 등 한국 영화가 한동안 침체기였던 만큼 일반 심사위원단이 공정성 등 심사의 불협화음을 없애고, 한국 영화 재부흥 도약의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하는 대종상 영화제는 1958년 열렸던 '국제 영화상'이 시초로 1961년 대종상으로 명칭을 바꿨다.

/곽선정기자 ksj@kwangju.co.kr

광주지역 대종상 일반 심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3일 영화관을 찾아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심사단./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23일 개장한 완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육군 31사단 완도 장보고 대대 장병들이 한국의 16강 진출을 기원하며 "필승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운명의 날 … 뜨거웠던 "대~한민국"

▶ 관련기사 4·18·19면

월드컵 한국과 스위스전이 열린 24일 새벽 대한민국은 하얗게 깨어 있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독일 하노버 월드컵 경기장의 태극전사들의 움직임에 고정돼 있었다.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 광화문과 제주까지. 전국 100여만명이 거리에 몰려나와 목청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쳐대며 하나가 됐다.

마음과 마음이 뭉쳤다.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자력으로 16강진출의 꿈을 이뤄주길 간절히 바랐다. 일찌감치 TV앞에 모인 가족과 이웃, 친구들이 만들어 낸 '뜨거운 밤'에 어둠이 비집고 들 틈이 없었다.

이날 새벽 서로는 마음을 열고 한 핏줄로 통했다. 월드컵은 이제 스포츠 행사를 뛰어넘어 온 국민이 하나 되는 축제가 됐다.

새벽을 뚫고 내뿜은 '대~한민국'의 하나된 함성. 그 것은 바로 서로의 가슴에 담긴 빨간 불덩이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월드컵 한-스위스전 광주 등 전국 100만명 거리에서 밤 샘 응원

오늘밤의 월드컵 (16강)

<25일>

독일 (A1) (B2) 스웨덴 — 뮌헨/00:00/KBS2·MBC·KBC

아르헨티나 (C1) (D2) 멕시코 — 라이프치히/04:00/KBS2·MBC·KBC

스코어 보드

이탈리아	(2승1무)	2 E 0	(1승2패)	체코
가나	(2승1패)	2 E 1	(1무2패)	미국
브라질	(3승)	4 F 1	(1무2패)	일본
호주	(1승1무1패)	2 F 2	(2무1패)	크로아티아

월드컵 스위스戰 결과 www.kwangju.co.kr

신문 제작시간 사정으로 경기결과를 싣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미국, '北 미사일 해법' 강·온 대립

페리-"선제 공격", 백악관-"외교적 해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해법을 놓고 일부에서는 선제공격을 주장한 반면 백악관에서는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는 등 미국 내 대북 강·온파 간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지난 2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을 통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북한의 미사일을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 때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획했던 페리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의 연료를 빼내 격납고에 다시 집어넣기를 거부하면 미국은 이를 선제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외교를 통한 해결 방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딕 체니 부통령은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행정부는 적절하게 외교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미정상회담 9월 워싱턴서 열린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양국 외교 채널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고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23일 밝혔다.

송 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양국간에 정상회담 일정을 몇달 전부터 협의해 왔는데 9월 정도에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경주 회담이후 10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며, 양 정상간에는 여섯번째 회담이 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